

“신속 처리” vs “요건되나” 與野 추경 공방

국회 10개 상임위 총동
기재위, 처리 시점·타당성 설전
경찰, 백남기씨 자료 제출 거부
안행위 野 퇴장으로 한때 파행

국회는 29일에도 법제사법위·기획재정위·정무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는 이날도 기재위와 정무위 등에서 각종 현안을 놓고 충돌했으며 안행위는 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파행하기도 했다.

이날 기재위의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결정과 관련, 추경안 처리 시점과 타당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추경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최대한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의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적어도 7월 안에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본예산과 3~4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대표인 김종인 의원은 “추경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일단 정부가 추경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이 짙다”면서 “과연 추경으로 우리 경제의 활성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을 투입하는 지원 방안을 논의한 청와대 특별관계회의의 적절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박인숙 국민안전처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신명 경찰청장. /연합뉴스

여당은 중요 경제정책 결정을 앞두고 공식·비공식적 대화채널을 가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옹호했고, 야당은 서별관회의 결정 과정에 대한 참석자 간 의견이 갈리는 만큼 진실 규명을 위한 청문회 및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은 “엄정난 금액이 들어가야 하는데 관계기관이 모여서 정책협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서별관회의는) 비밀회의나 음모가 아니라 정당한 의사결정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서별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해법을 두고 충돌했는지 알아야만 최종적으로

도출한 결론이 합리적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행위의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대에 빠진 농민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한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오전 한때 파행을 빚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수사·심리 영향’을 사유로 사건 당시 현장 CCTV 영상과 경찰의 청문감사보고서 제출을 거부하자 야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을 거부하고 퇴장했기 때문이다. 회의는 여야 간사가 국회 의사국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강신명 경찰청장으로부터 제출 약속을 받은 뒤야 재개됐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업무보고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헌법소원이 제기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적용되는 게 적절하지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기자나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라며 “국민의 사적 활동에 평등권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더민주 조운천 의원은 “이 사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가 당연히 검토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더민주도 “경유값 조정 필요”

미세먼지 대책 발표 “휘발유값 90% 돼야”...2야 공조 주목

국민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야권이 경유 가격 인상에 공조할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29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등 3대 에너지에 대한 상대가격 조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한정에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휘발유 가격과 경유의 가격이 100대 90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부의장은 “처음에는 에너지 가격을 건드리지 않고 검토하려 했으나 불가능한 상태”라며 “대신 여기서 확보된 세원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아울러 경유차 등 미세먼지

를 많이 발생시키는 차량 구매자에 부담금을 부과해 이를 통해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도 제안했다. 미세먼지 고통도 예방하는 천연가스 발전소를 우선 가동하도록 하고,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시켰다. 장기적으로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인력 및 시설 보강을 통한 정확한 미세먼지 사전예보 시스템 구축도 주문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은 ‘정확한 오염 발생량 조사’를 전제로 한 경우 세금 제도 개편, 전력수급 및 화력발전 등에 환경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기구 운영 등을 대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 특히 경유가격 조정은 두 야당이 공통된 부분이라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입법 연구모임 ‘어젠다 2050’ 출범

유승민·김종인 등 여야 중진 참여

국회 입법 연구모임 ‘어젠다 2050’이 29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주도하는 ‘어젠다 2050’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원장 이광형)과 공동으로 교육·고용·복지·조세·행정 등 5개 분야의 미래 입법 과제를 연구하게 될 초당적 연구모임이다.

이 모임에는 특히 최근 새누리당에 복당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국

민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 여야 중진 의원들이 대거 정회원으로 참여해 주목을 끌었다.

입법연구에 중점을 둔 모임이라고는 하지만 여야의 잠재적 대권주자 내지는 ‘김메이커’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자연스럽게 차기 대권이 화두가 되고 논의의제들도 대선 공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새누리당 유승민·주광덕 의원을 제외한 회원 전원과 자원위원단이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새누리도 박인숙 친인척 채용·이군현 보좌진에 갑질

비난 일자 부랴부랴 ‘8촌 이내 채용 금지’ 밝혀

더민주 “남의 당 욕하기는 쉬워...처리 지켜볼 것”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의 비리 의혹과 말썽으로 위기에 몰리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도 소속 의원들의 일탈 행위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박 의원은 자신의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자신의 당원협의회 사무실에서 회계를 맡던 동생을 국회의원실 인턴 직원으로 채용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최근 야당 의원님의 ‘보좌진 가족 채용’ 문제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있는 시점에 저의 보좌진 친척 채용으로 논란을 일으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들은 의원실에서 맡은 업무에 있어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근무했다”면서도 “어떤 이유든 어떤 상황이든 국민 눈높이에서는 변명일 뿐인 것을 안

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친·인척 보좌진을 의원실에서 내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에 누를 끼친 점, 모든 당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을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군현 의원 역시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 논란이 계속되자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속 의원들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는 행위를 일

정 금지하기로 했다고 지상욱 대변인이 밝혔다. 비대위는 또 보좌진의 법외 임용과 보좌진 급여의 용도 외 사용도 당규로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더민주 이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제가 며칠을 잡았다. 남의 당을 욕하기는 쉬워 자기 개혁이 어려운 법”이라며 “새누리당 대변인까지 나서서 우리 당과 국민의당을 비난한다. 같은 것대로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이나 박인숙 의원의 문제를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정인화, 광양항 크레인 3기 추가 설치 성과

추경 편성 요구 등 활성화 주문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 주목을 끌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28일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24일 크레인 3기 추가 설치 약속을 받아내고 내년 예산 6억 원을 기재부에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대형 선박의 안전 운항에 위협이던 특정해역 대형안초(삼여등표)를 제거하기 위해 내년 예산 78억 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다. 정 의원은 또 ▲부산항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를 보이고 있는 냉장냉동창고 등冷链물류서비스 확대 ▲동측배우단지~성황지구 연결도로 개설 ▲유휴항만 해양클러스터 지구 지정 ▲울릉 2산단 준설도 투기장 조기완공 등은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조성되어야 할 시설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추경에 소속히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